

'하나의 세계 하나의 스포츠 태권도'

31일까지 무주 태권도원 나래홀서 '전북 스포츠 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 세계태권도연맹·스포츠학회 관계자 등 참석 태권도 사관학교 등 주제발표

2023 전라북도 스포츠 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가 29일 무주에서 막을 올렸다. 31일까지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이번 행사는 세계태권도연맹(WT)이 주최·주관하고 전북도와 무주군,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29일 열린 개막식에는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장, 정진욱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축하공연

등을 참관했다. 축하공연은 판페리를 비롯해 국가대표 시범단의 맨스스포츠, 계명대와 고신대 학생들의 태권도 시범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조정원 WT 총재는 영상을 통해 "스포츠 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는 2021년 첫 개최 이후 태권도의 학문적 가치를 탐구하고 공유하는 이상적인 플랫폼으로서 명성을 얻어왔다"며 "콘퍼런스의 기획을 통해 비전을 지원해 주신 무수한 개인과 기관에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이

유익한 토론과 지식 공유를 이루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하 영상을 통해 "이 자리를 통해 들로 나린 태권도가 그동안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의 태권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며 "우리나라 전통 무예인 태권도가 더 많은 세계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는 "올해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과 효율적 운영방안,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이 주제로 채택돼 기대가 된다"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무주에 건립돼 세계 태권도 성지의 위상을 높이고 태권도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돼 그 가치와 세계 태권도인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개회식에 앞서 진행된 1일차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운영방안, 교육과정 제안' 등 3개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 6개 주제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30일 진행된 3부에서는 '세계태권도연맹 설립 50주년 기념 향후 미래 과제'에 관한 3개의 주제, 4부에서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태권도 유네스코(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 전략'에 관한 2개의 주제, 그리고 5부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권도 환경 및 국제화 계획' 등 3개의 주제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3 전라북도 스포츠 태권도 국제융합콘퍼런스가 29일 무주 태권도원 나래홀에서 막을 올린 가운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하성, 4경기 만에 안타 신고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전서 4타수 1안타 샌디에이고, 4대 1로 승리 거둬... 3연패 탈출

김하성(28·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4경기 만에 안타를 신고했다. 김하성은 29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2023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24일 마이애미 말린스전 이후 4경기 만에 안타를 날린 김하성은 시즌 타율 0.274(435타수 119안타)를 유지했다. 최근 3경기에서 안타를 치지 못하면서도 볼넷으로 계속 출루했던 김하성은 10경기 연속 출루 행진도 이어갔다. 김하성의 시즌 출루율은 0.367이다. 김하성의 안타는 1회 첫 타석에서

나왔다. 1회초 세인트루이스 선발 애덤 웨인라이트를 상대한 김하성은 가운데로 몰린 초구 직구를 노려쳐 중전 안타를 뽑아냈다. 타구가 상대 2루수의 키를 살짝 넘기면서 안타로 연결됐다. 김하성은 후속타가 터지지 않아 더 이상 진루하지는 못했다. 이후 타석에서는 안타를 치지 못했다. 김하성은 3회초 무사 1루에서는 희생번트를 때 1루 주자 트랜트 그라스를 2루까지 보냈다. 5회초에는 1사 주자 없는 상황에 중견수 플라보로 몰려났다. 6회초는 무척 아쉬웠다. 샌디에이고

가 선취점을 뽑은 뒤인 6회초 2사 만루 찬스에 타석에 들어선 김하성은 3루 땅볼에 그치며 고개를 숙였다. 김하성은 8회초 2사 후에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갔다.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4-1로 꺾고 3연패 탈출에 성공했다. 6회초 1사 1, 3루에서 맷 카펜터가 우전 적시타를 날려 7의 균형을 갠 샌디에이고는 7회초 2사 1, 2루에서 터진 개럿 쿠퍼의 적시타로 1점을 더했다. 샌디에이고는 9회초 1사 만루에서 쿠퍼가 2타점 좌전 적시타를 뽑아내 4-1로 달아났다. /뉴시스

"선수들에 조금이나마 보탬 되길"

박영재 전북승마협회 회장 체육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전북 체육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전라북도체육회에 속속 담겨지고 있다. 전북체육회는 전북승마협회 박영재 회장(도 체육회 이사)이 선수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원의 전북체육발전기금을 기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금은 오는 10월 전남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전북 선수단의 출전비 등에 쓰여지게 된다. 전북 승마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박 회장은 전북 대표로 전국체전에 나서는 선수들의 선전을 바라며 흔쾌히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뉴시스



박 회장은 "전북 체육 위상을 드높이는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을 비롯해 전북 체육 발전을 바라는 마음이 체육인들을 넘어 각계각층에서 속속 전달되고 있다. /뉴시스

배드민턴 세계 챔피언 안세영의 위엄

"이젠 따라가지 않는다"

남녀 단식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 세계선수권 우승

2023 세계개인 배드민턴선수권 대회 여자단식 챔피언 안세영(21·삼성생명)이 금의환환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지난 28일(한국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에서 여자단식, 혼합복식, 남자복식 금메달과 여자복식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에서 한국이 3개 종목을 제패한 것은 역대 최고 성적이다. 그 중심에는 배드민턴 강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있다. 안세영은 남녀 단식 통틀어 한국 선수 최초로 세계선수권에서 우승을 거두며 서늘속 여자 방수현도 해내지 못한 쾌거를 이뤘다. 방수현은 1993년 은메달, 1995년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 배드민턴 대표팀은 29일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안세영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랭킹 1위로 처음 출전한 대회여서 부담감이 많았다. 타는 안 냈지만 많이 힘들었다"며 "경기를 혼자 풀어가야 해서 어떻게 경기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플레이를 하다가 보니 재밌게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따라가야 하는 선수가 아니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더 격려했고 많이 어려웠다. 내가 목표로 삼고 잡아야 할 방향들이 내가 되어 버려서 많이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험난한 상대는 준결승에서 만난 세계랭킹 3위 천위페이(중국)였다. 안세영은 천위페이를 2-0(21-19 21-15)으로 눌렀다. 안세영은 "천위페이는 워낙 까다로운 선수여서 긴장한 채로 경기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자신 있게 플레이를 해서 수월하게 풀어 나갔다. 보는 분들이 느끼셨다면 성공한 것 같다"며 미소를 보였다. 안세영은 올해 12번의 국제대회에서 8차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기쁨을 토했다.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 안세영은 "선수로서 이겨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잘 이겨내면 더 뿌듯한 성과를 얻는다. 잘 즐기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회계인도 호고싶은

진안홍삼축제

2023 JINAN RED GINSENG FESTIVAL

9.22(금)~9.24(일) 마이산 북부

9.22. 몽금척 퍼레이드, 진안의 영광(코요테, 부활), 별별 퍼레이드
 9.23. 나는 진안가수다, 진안고원 트로트 페스티벌
 9.24. 청소년 문화축제(이채연), 가족뮤지컬 <브레드 이발소>

홍삼김밥을 지켜라! 가족공연(풍선, 마술, 버블) 두둥실~얼기구체엄 등등
 진안홍삼축제에서 만나요 ^^

2023-2024 한국관광 100선
 2020-2023 문화관광축제 / 전라북도 최우수축제
 주 관: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 문의: 063-430-2391-3 / www.jinan.go.kr/festival